

해방기 출간 <아협 그림애기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hyeop Picture Storybook> published in the Liberation Period

진 나 영(Na-Young Jin)*

〈목 차〉

I. 서론	및 발행, 삽화가 분석
II. <아협 그림애기책>의 발행 및 현전본	1. 체제 분석
1. 아협과 <아협 그림애기책>의 발행	2. 발행 분석
2. <아협 그림애기책>의 현전본	3. 삽화가 분석
III. 현전본 <아협 그림애기책>의 체제	IV. 결론

초 록

본 연구는 해방기에 출간되었던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를 대상으로 당시 출판, 현전본의 현황, 체제 및 발행 분석, 삽도화가 분석을 통해 <아협 그림애기책>의 발행을 비롯하여 체제, 형태,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았다. 을유문화사와 조선아동문화협회(아협)에서 어린이의 생활 해방과 아동문화 건설을 위해 출간한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는 현재 5책이 남아 있다. 미전본은 당시 발행되었던 신문에 실린 광고 기사를 토대로 책들의 출판 이력을 확인하였다. 현전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표지·권수(卷首)·본문·권말(卷末)의 체제로 동일하게 구성되었으며, 본문에는 그림이야기 형식의 3컷 만화와 이야기로 이루어진 특징을 보였다. 책의 크기는 A5 판형, 분량은 대체로 32면이며 반양장의 장정 형태로 발행되었다. 삽화가로는 당대에 미술 분야에서 활약을 했던 김용환, 김의환 형제가 참여했다.

키워드: 조선아동문화협회, 아협, 을유문화사, 그림애기책, 김용환, 김의환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system, form and contents of <Ahyeop Picture Storybook> including its publication in depth through the analysis on the publication of those days, present condition of extant edition, system and publication, illustrator etc., targeting <Ahyeop Picture Storybook> series which was published in the liberation period. As for <Ahyeop Picture Storybook> series which was published by Eulyoo Publishing and Joseon Children Culture Association(Ahyeop) for building children's life liberation and children culture, 5 books still remain now. For the extinct edition, this study confirmed publication history of books based on the advertisement carried on the newspaper which was published of the time. As a result of analyzing extant edition, this study found that the book was composed equally as a system of cover, beginning, body and the end, and the body was characterized by the composition of 3-cut comic and story as a form of storybook. The size of the book is A5 book size with 32 pages of quantity and was published as a semi-hardcover bound book. As for illustrators, Kim brothers (Yong-hwan, Eui-hwan) who played an active part in the field of art of the time participated.

Keywords: Joseon Children Culture Association, Ahyeop, Eulyoo Publishing, Picture Storybook, Kim Yong-hwan, Kim Eui-hwan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시간강사(jny415@naver.com)

•논문접수: 2018년 11월 20일 •최초심사: 2018년 11월 27일 •게재확정: 2018년 12월 13일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4), 405-427, 2018. [http://dx.doi.org/10.16981/kliiss.49.201812.405]

I. 서론

해방 직후 우리나라는 민족국가의 건설을 위해 우리말과 글에 대한 국민들의 열의와 욕구가 대단히 높았다. 특히 일제치하에서 출판법, 신문지법 등으로 억압 받았던 언론과 출판은 1945년 10월 군정법령 제19호의 공포에 의해 출판활동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면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종이 생산능력이 떨어져 용지가 부족하고, 활판 인쇄소에는 한글 활자가 남아 있지 않은 악조건 속에서도 을유문화사, 박문출판사, 정음사, 백양당 등의 출판사가 등록되었다.

해방 이후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뜻을 모아 을유문화사가 출판을 시작하였다. 초창기 을유문화사는 특히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민족문화를 전하고 우리의 문자인 한글을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 아동도서의 출판에 힘썼다. 아동도서 발행을 위해 을유문화사의 창립자 중 하나인 윤석중을 대표로 조선아동문화협회(아협)를 설립하였다. 아협은 어린이들이 쉽게 우리 문화, 한글을 접할 수 있도록 그림책 형식을 갖춘 전래동화, 명작동화를 출판하기 시작했다. 아협에서는 1946년 2월에 어린이 잡지 <주간 소학생>을 펴냈는데, 해방 후 발간된 최초의 주간지였다. 이 잡지는 신인작가들에게 글과 그림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김용환과 김의환이 이 잡지를 통해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아협은 어린이 독자에게 큰 인기를 모은 <주간 소학생>을 통해 연재되었던 글을 모아 단행본 형태의 그림책을 출간하는 사업을 기획하였다. 아협에서 기획하여 발행한 아동용 단행본 중 눈에 띄는 것은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이다.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의 출판은 당시로서는 선구적이며 획기적인 출판기획이었으며, 해방 이후 최초로 출간된 아동을 위한 단행본 형태 그림책의 시리즈, 즉 아동용 개인 전집이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 또한 전문 화가들이 참여한 <아협 그림애기책>은 글과 그림이 잘 어우러져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 전달이 충실할 수 있었다. 이렇듯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 출간은 한국에서의 아동 그림책의 출판과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아협 그림애기책>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연구에서 연구주제를 위한 보조적인 역할로서 언급이 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도서 출판에 있어 선구적이며 전문 화가들의 참여로 출간된 <아협 그림애기책>의 발행과 현전본의 현황을 조사한다. 미전본은 당시 발간되었던 신문에 기재된 광고 기사를 통해 출판 여부 및 이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현전본 <아협 그림애기책>을 대상으로 책을 구성하는 체제를 분석하고, 발행과 관련된 요소들을 분석하며, 삽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II. <아협 그림애기책>의 발행 및 현전본

1. 아협과 <아협 그림애기책>의 발행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는 아협에서 1946년부터 1950년에 발행되었다. 아협은 조선아동문화협회(朝鮮兒童文化協會)의 약칭이다. 조선아동문화협회는 출판사인 을유문화사에서 부대사업으로 조직한 단체였다. 을유문화사는 1945년 12월에 민병도, 정진숙, 조풍연, 윤석중 등 4명이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영보빌딩에 창설되었다(조선출판문화협회 1949, 91).

일제 강점기에 언어, 사상 등 억압당하였던 상황 속에서 어린이의 교육, 문화는 열악하였다. 그러나 해방이 되자 사람들은 자유를 되찾았고 민족문화 향상과 더불어 새로운 어린이문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어린이와 관련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뜻을 모았다. 을유문화사는 아동들에게 국어의 보급을 통해 우리글을 읽고 정확히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다. 특히 ‘민족문화 향상에 기여한다’는 을유문화사의 출판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어린이를 위한 출판 및 문화사업을 담당할 을유문화사 병설 조선아동문화협회(아협)가 발족되었다(정진숙 2007, 104). 아협은 도서의 판매 및 수출입에 대한 업무뿐만 아니라 해방을 맞은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민족문화 선양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아동문화의 선도적 창달을 위해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즉 아협은 어린이에게 우리글을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글로 된 책을 출판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노래 보급과 글짓기 등의 사업을 하였다. 아동도서와 잡지 간행에 주력을 기울여서 우리말과 우리글을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문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을유문화사의 아협은 윤석중 주간, 조풍연 편집국장을 중심으로 1946년 2월 11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잡지인 <주간 소학생>을 창간하였다. 이를 필두로 해방 이후 성장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아동서적의 출판을 계속 이어 나갔다. <주간 소학생>은 많은 사람들의 참여로 발간되었는데, 특히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전개함에 있어 그림을 통해 이해를 높이도록 하였다. <주간 소학생>은 신인작가에게 작품발표의 기회를 많이 주었다. 특히 <주간 소학생>에서 많은 그림을 연재했던 사람 중에는 김용환과 김의환 형제를 대표로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이 잡지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으며, 두 형제의 작품은 독자들에게 큰 인기를 모았다. 이렇게 책이나 이야기를 그림으로 연재하여 당시 어린이들 사이에 애독된 까닭으로 아협에서는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작품들을 대상으로 그림을 곁들인 아동도서로 만들어 계속적으로 출간했다.

아협에서 그림을 넣은 아동도서 출간을 기획했던 것 중 가장 눈에 띄는 책은 1946년부터 6.25 전쟁 발발 전까지 연속적으로 발간된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가 있었다.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는 3년에 걸쳐 출간된 아협의 기획물로서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9권 제4호)

을유문화사에서 출간한 『을유출판사 50년사』에 기재된 발행도서목록에 따르면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는 모두 13집으로 구성되어 출간되었다고 했다. 이들 책들의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을유출판사 50년사』 발행도서목록에 기재된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

순번	서명	저자	출간일
1	홍부와 놀부	김용환 그림	1946.09.01
2	손오공	김용환 그림	1946.09.01
3	피어터펜	김의환 그림	1946.10.01
4	보물섬	김용환 그림	1946.10.01
5	어린 예술가	김의환 그림	1946.11.01
6	ल्लीबे 여행기	아협 편	1947.03.10
7	토끼전	김용환 그림	1947.08.27
8	로빈슨 크루소	아협 편	1947.12.05
9	왕자와 부하들	조풍연 편 ; 김의환 그림	1948.03.27
10	곤충이야기	조복성 저	1948.07.20
11	꿈나라의 아리쓰	정현웅 그림	1948.11.30
12	사랑의 학교	아미치스 저 ; 이영철 옮김	1948.12.10
13	링큰	아협 꾸밈	1949.03.27

위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는 1946년 9월 1일 김용환 그림 『홍부와 놀부』를 시작으로 『손오공』, 『피어터펜』, 『보물섬』 등 김용환과 김의환의 그림으로 출간되었고, 1949년 3월 『링큰』을 마지막으로 13책을 연속 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 발행에 대해서는 현재 을유문화사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서비스 중이다.

2. <아협 그림애기책>의 현전본

가. 현전본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을유문화사 50년사』에 기재된 발행도서목록을 토대로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는 모두 1집부터 13집까지 발간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을유문화사 창립자 중 하나인 정진숙은 <아협 그림애기책>이 1946년 9월 김용환 그림 『홍부와 놀부』를 필두로, 『손오공』, 『피터 펜』, 『보물섬』, 『어린이 예술가』가 김용환 · 김의환 형제의 책으로 나왔고, 1949년 3월 아협 꾸밈 『링컨』으로 마지막 열권을 채웠다고 밝히고 있다.¹⁾ 중앙

1) 중앙일보 1985년06월25일자 “제85화 출판의 길40년(58)－정진숙「아동문화협회」의 활동”에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다.

일보에 기사가 기재된 시점은 1985년 6월이고, 을유문화사에서 『을유문화사 50년사』가 출간된 시점은 1995년이다. 약 10년의 차이가 있어 그 사이에 <아협 그림애기책> 출간에 대한 사실을 새로 밝혔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을유문화사 50년사』에 기재된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 13책 중 현전하는 책이 많지 않은 까닭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고, 후에 출간된 『을유문화사 50년사』의 출판목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2007년에 발행된 『출판인 정진숙』에서는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가 장장 3년에 걸쳐 총 10권의 책을 펴냈다고 기재하였다(정진숙 2007, 109). 이들 내용을 종합해보면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가 모두 13책인지 10책으로 구성되었는지가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을유문화사가 제시한 13책을 대상으로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인지에 대한 여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의 13책에 대한 목록을 토대로 <아협 그림애기책>의 현전 여부를 조사·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의 현전 여부 현황

순번	권호	서명	출간일	현전 여부	소장처
1	제1집	흥부와 놀부	1946.09.01	X(광고확인)	—
2	제2집	손오공	1946.09.01	X(광고확인)	—
3	제3집	피어터팬	1946.10.01	O	개인소장
4	제4집	보물섬	1946.10.01	O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5	제5집	어린 예술가	1946.11.01	O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6	제6집	결리버 여행기	1947.03.10	O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7	제7집	토끼전	1947.08.	X(광고확인)	—
8	제8집	로빈슨 크루소	1947.12.05	X(광고확인)	—
9	제9집	왕자와 부하들	1948.03.27	X	—
10	제10집	곤충이야기	1948.07.20	O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11	제9집	꿈나라의 아리쓰	1948.11.30	X	—
12	—	사랑의 학교	1948.12.10	X	—
13	제13집	린큰	1949.03.27	X(광고확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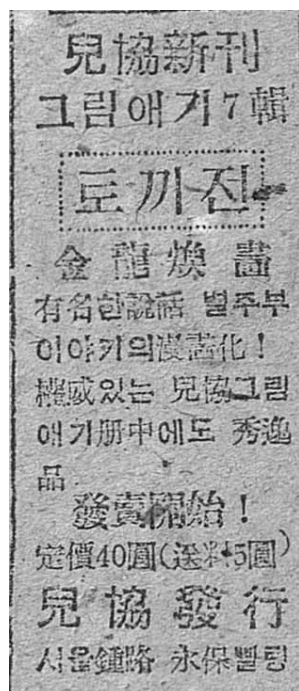
위의 <표 2>의 순번은 『을유문화사 50년사』의 발행도서목록에 기재된 발행년월일에 따라 매긴 것이고, 권호는 『을유문화사 50년사』에 기재된 바대로 채워놓은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을유문화사 50년사』의 발행도서목록에 기재된 발행년월일에 따라 시리즈의 권호 번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였는데, 『왕자와 부하들』이 제9집으로 나왔고 이보다 후에 발행된 『꿈나라의 아리쓰』가 또다시 제9집으로 권호가 중복되어 기재된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사랑의 학교』는 권호가 제시되지 않아 실제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가 맞는지에 대한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또한 1949년에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발행된 『린큰』이 제13집으로 기재되

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 중 현전본이 적은 까닭으로 이들 책을 발행했던 을유문화사의 발행도서목록에 의존해야 하는데 실제와 다른 사실이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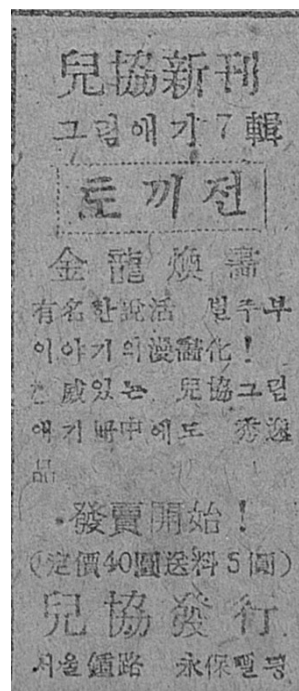
13책 중에 현전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개인소장 중인 제3집 『피터어팬』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소장 중인 제4집 『보물섬』, 제5집 『어린 예술가』, 제6집 『꼴리버 여행기』 그리고 제10집 『곤충이야기』 뿐이었다.

나. 미전본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의 현전 여부를 조사하던 중에 당시 발행된 신문의 기사 광고에서 아협에서 <그림애기책>을 출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전하지는 않지만 출간이 확실했던 것은 모두 4책에 해당되었는데 제7집 『토끼전』, 제8집 『로빈슨쿠루소』, 제10집 『곤충이야기』²⁾와 제13집 『린큰』이 바로 그것으로, 이들 중 제7집 『토끼전』에 관한 신문기사 광고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한성일보> 1947년 8월 19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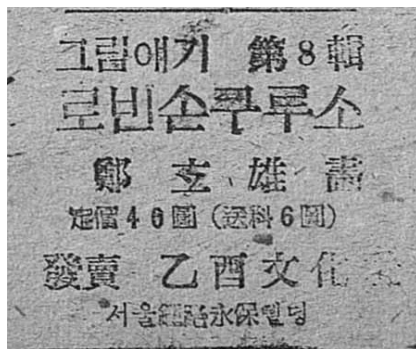
<부인신보(婦人新報)> 1947년 9월 2일자

<그림 1> 신문기사에 기재된 『토끼전』 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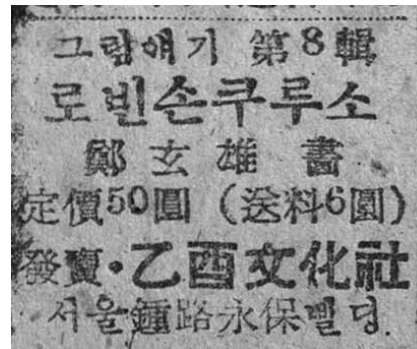
2) 『곤충이야기』는 미전본이 아니라 현전본이지만 신문 광고 2건을 확인하였고, 광고 내용 중에 『곤충이야기』 책 자체에서 확인할 수 없던 것들을 담고 있었고, 이 책이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함께 다루도록 하겠다.

『을유문화사 50년사』의 발행도서목록에는 『토끼전』이 <아협 그림애기책> 제7집으로서 1947년 8월에 32면, 정가 40원으로 구성되어 출간되었다고 기재하였다. 목록에서 제시한 출간일과 비슷한 시기인 <부인신보> 8월 19일자와 <한성일보> 9월 2일자에 『토끼전』에 대한 광고가 위의 <그림 1>과 같이 실렸다. 다시 말하면 『토끼전』은 현재 남아있지는 않지만 당시 발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고에 기재된 『토끼전』에 대한 정보로는 아협에서 발행한 신간으로, 정가는 40원이며 송료(送料)는 5원이다. 또한 김용환의 그림이 들어 있으며, 유명한 실화인 별주부 이야기를 만화화한 책으로서 권위 있는 <아협 그림애기책> 중 수일품(秀逸品)이라고 광고하였다.

제8집 『로빈손쿠루소』에 관한 신문기사 광고는 다음 <그림 2>와 같았다.



<한성일보> 1947년 12월 11일자



<현대일보> 1947년 12월 12일자

<그림 2> 신문기사에 기재된 『로빈손쿠루소』 광고

『을유문화사 50년사』의 발행도서목록 상에는 『로빈손쿠루소』가 <아협 그림애기책> 제8집으로서, 1947년 12월 5일에 32페이지, 정가 40원으로 구성되어 출간되었다고 기재하였다. 출간일 6일 뒤인 12월 11일에 발행된 <한성신문>에는 『로빈손쿠루소』에 대한 광고가 위의 (그림 2)와 같이 실렸다. 이 신문 광고를 통해 <아협 그림애기책> 제8집인 『로빈손쿠루소』는 『토끼전』과 마찬가지로 현재 남아있지는 않지만 당시 발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광고에 기재된 『로빈손쿠루소』에 대한 정보로는 아협에서 발행한 신간으로, 정가는 40원이며 송료(送料)는 6원이다. <현대일보>의 광고도 이와 동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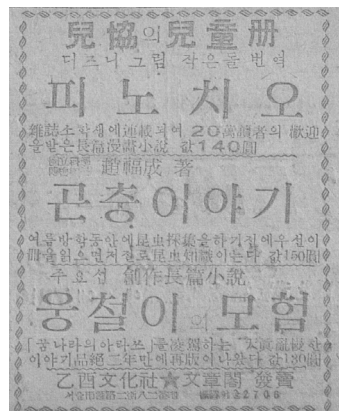
『을유문화사 50년사』의 발행도서목록에는 『로빈손쿠루소』의 작가에 대한 정보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위의 <한성일보> 광고 기사를 통해 『로빈손쿠루소』가 정현웅의 그림으로 이루어졌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곤충이야기』에 관한 신문에 실린 광고는 다음 <그림 3>과 같았다.

『을유문화사 50년사』의 발행도서목록에는 『곤충이야기』가 <아협 그림애기책> 제10집으로 1948년 7월에 80페이지, 정가 150원으로 구성되어 출간되었다고 기재하였다. 기재된 출



<평화일보> 1948년 7월 9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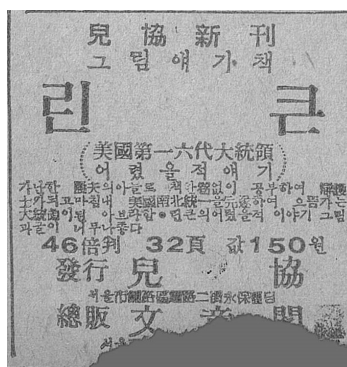


<조선중앙일보> 1949년 7월 8일자

<그림 3> 신문기사에 기재된 『곤충이야기』 광고

판연도와 월에 해당하는 <평화(平和)일보> 7월 9일자에는 『곤충이야기』에 대한 광고가 위의 <그림 3>과 같이 실렸다. 앞서 살펴본 『토끼전』이나 『로빈슨쿠루소』의 광고에는 <아협 그림애기책>이라는 사실이 기재되었으나 『곤충이야기』에서는 그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광고에 기재된 『곤충이야기』에 대한 정보로는 아협에서 발행한 신간으로, 국판(菊版)의 형태로 80면으로 구성되었으며, 정가는 150원이다. 아협의 여름방학선물로 국립과학박물관장 조복성(趙福星) 선생이 저술하였고, 어린이들과 가장 밀접한 동물 곤충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그 생활에서 채집에 이르기까지 친절하게 설명한 과학책이라고 소개하였다. 『곤충이야기』에는 삽화 90매가 들어있다고 하였다.

약 1년 뒤인 1949년 7월 8일자 <조선중앙일보>의 광고에서도 『곤충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었다. 여름방학동안에 곤충채집을 하기 전에 우선 이 책을 읽으면 저절로 곤충지식이 늘어난다고 소개하였다. 값은 1년 전과 마찬가지로 150원이었다. 1년 후에도 신문 광고를 한다는



<연합신문> 1949년 3월 12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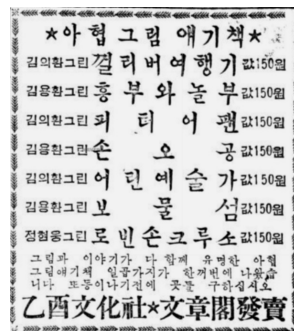
<그림 4> 신문기사에 기재된 『린큰』 광고

사실로 『곤충이야기』가 오랜 기간 꾸준히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았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 중 가장 마지막으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는 『린큰』에 관한 신문 광고도 찾아볼 수 있었다. 이는 다음 <그림 4>와 같다.

『을유문화사 50년사』의 발행도서목록 상에서 『린큰』은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 중 제 13집으로 1949년 3월에 32페이지, B5판형, 정가 150원으로 출간되었다고 기재하였다. 기재된 출판연도와 월에 해당하는 <연합신문> 3월 12일자에는 『린큰』에 대한 광고가 위의 <그림 4>와 같이 실렸다. 광고에 기재된 『린큰』에 대한 정보로는 아협에서 발행한 신간으로, <그림애기책>이며, 46배판(倍判) 형태³⁾로 32매로 구성되었으며, 값은 150원이다. 발행은 아협이고, 총판(總販)은 문장각(文章閣)이 담당하였다. 『린큰』은 미국 제1대 대통령의 어렸을 적 이야기며,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책 한권 없이 공부하여 변호사가 되어 마침내 미국 남북통일을 완수하여 으뜸가는 대통령이 된 아브라함 링컨의 어렸을 적 이야기로서 그림과 글이 너무나 좋다고 소개하였다. 『린큰』 또한 현전하는 것이 없으나 신문에 이에 대한 광고가 실렸던 것으로 보아 실제 출간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을유문화사 50년사』의 출판목록에 따르면 <아협 그림애기책>은 1946년부터 1949년까지 3년간 출간되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1950년에 <아협 그림애기책> 광고가 신문에 실렸다. 이는 다음 <그림 5>와 같다.



<경향신문> 1950년 4월 5일자

<그림 5> 신문기사에 기재된 <아협 그림애기책> 광고

<경향신문> 1950년 4월 5일자 광고 중에 <아협 그림애기책>에 관한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광고에 기재된 책은 7책으로, 아협에서 출간한 제1집 『홍부와 놀부』, 제2집 『손오공』, 제3집 『피터어팬』, 제4집 『보물섬』, 제5집 『어린 예술가』, 제6집 『결리버 여행기』와 제8집 『로빈슨 크루소』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제1집 『홍부와 놀부』와 제2집 『손오공』은 현전하는

3) 『린큰』 이전에 발행된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는 A5 형태로 대부분 출간되었으나 시리즈 중 유일하게 『린큰』은 4x6배판으로 기존과 판형과는 달리 출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책이 남아있지 않을뿐더러 출간 당시 책을 홍보하는 광고를 찾지 못해 출간 여부를 확실하게 할 수 없었는데 위 <그림 5>와 같이 후에 실린 신문 광고를 통해 실제로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로 이미 출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ल्ली버 여행기』와 『로빈슨 크루소』의 경우는 작가에 대한 정보가 ‘아협 편’만 확인할 수 있어 그림 작가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신문 광고에 기재된 정보를 통해 『ल्ली버 여행기』의 그림 작가는 김의환이고, 『로빈슨 크루소』의 그림 작가는 정현웅이라는 사실도 새로이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신문 광고에는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에 대해 ‘그림과 이야기가 다함께 유명한 아협 그림애기책 일곱 가지가 한꺼번에 나왔다’고 하며, ‘또 동이 나기 전에 구하십시오’라는 문구를 넣었다. 이 문구를 통해 독자들에게 <아협 그림애기책>에 대한 인기가 상당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전에 출간했던 각 책들의 정보와 1950년에 다시 출간된 각 책들 간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바로 책의 가격이었다. 광고에 실린 7가지 책 중 『로빈슨 크루소』의 책값만이 40원이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책의 가격은 모두 15원이었다. 1950년 <경향신문> 광고에 따르면 7가지 책의 가격이 각각 150원이라고 했다. 4년 전 15원이었던 책값이 약 10배 정도 비싸진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949년에 출간된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 중 제13집 『린큰』이 32페이지이며 이전에 출간된 다른 책들과 형태가 동일함에도 책값이 150원이었던 것을 통해 1948년부터 1949년 사이에 책을 출판하는 데에 사용할 용지의 부족 등 여러 환경에 의해 책값이 비싸진 것으로 파악된다.

Ⅲ. 현전본 <아협 그림애기책>의 체제 및 발행, 삽화가 분석

1. 체제 분석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의 출판사인 을유문화사의 발행도서목록 상에는 <아협 그림애기책>이 모두 13집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나 현전하는 것은 5책으로 확인되었다. 현전하고 있는 5책, 『피터어팬』, 『보물섬』, 『어린 예술가』, 『ल्ली버 여행기』와 『곤충이야기』를 대상으로 체제를 분석하였다.

가. 표지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는 반양장으로 구성되었고, 표지에는 책의 내용에 따른 그림이 그려 있었으며 다양한 색을 이용하여 채색이 되었다. 현전본 <아협 그림애기책>의 앞표지는 다음 <그림 6>과 같다.



<그림 6> <아협 그림애기책> 앞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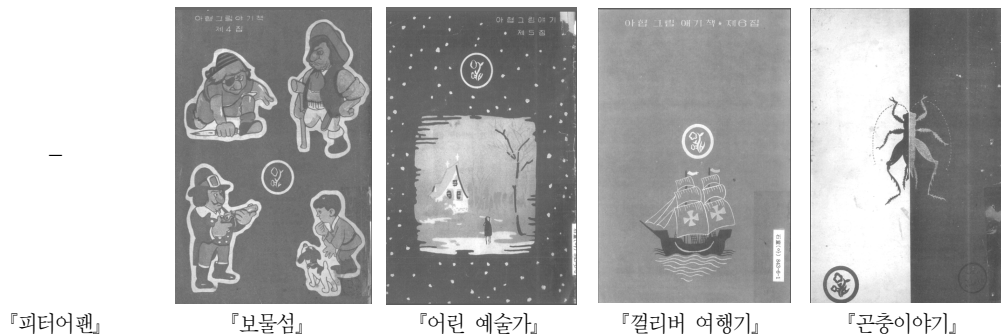
<그림 6>과 같이 <아협 그림애기책>의 표지에는 서명, 저자사항이 표지 윗부분에 기재되었다. 『보물섬』과 『어린 예술가』는 원저작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삽화를 그린 화가의 성명만을 표지에 기재하였고, 『피터어펜』과 『결리버 여행기』는 원저작자의 성명과 삽화 화가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였다.

표지의 중간 부분에는 책의 내용에 맞는 삽화가 있다. 비교적 삽화가 표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 책의 내용을 더욱 부각시키고 책의 독자인 어린이들의 관심과 흥미를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표지 아랫부분에는 발행처인 ‘조선아동문화협회’가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결리버 여행기』와 『곤충이야기』를 제외한 나머지 책들에는 조선아동문화협회가 위치하고 있던 ‘서울’이라는 발행지에 대한 정보도 나타났다.

『곤충이야기』는 서명 위에 ‘소년 과학 독본’이라고 기재되었다. 이는 다른 4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점이었다. 표지 외에 다른 체제에 있어서도 『곤충이야기』만이 지니는 특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의 현전본 중 『피터어펜』의 뒤표지를 제외한 나머지 4책의 뒤표지는 다음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아협 그림애기책> 뒤표지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의 뒤표지에도 책 내용과 관련된 그림을 넣어 독자의 흥미를 이끌 수 있도록 하였다. 『보물섬』, 『어린 예술가』와 『결리버 여행기』는 그림 외에 ‘아협그림애기책’ 제0집이라고 기재되었다. 『보물섬』은 제4집, 『어린 예술가』는 제5집, 『결리버 여행기』는 제6집임을 뒤표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곤충이야기』는 앞서 기술한 3책과는 달리 그림만 있을 뿐 기재된 문구가 없었다. 앞표지에서도 다른 책들과 차이가 있던 점으로 보아 책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것 이외의 차이점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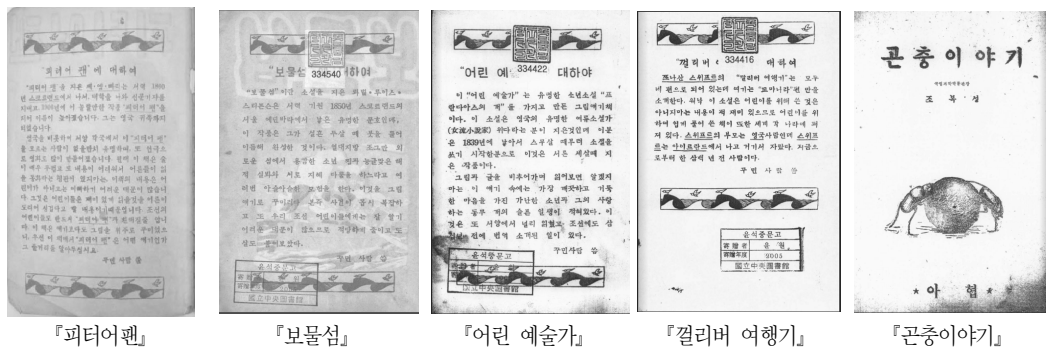
모든 책의 뒤표지에는 동일한 문양이 있었는데, 이것은 조선아동문화협회의 상징문양(로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 <그림 8>이 아협의 상징문양이다.



<그림 8> 조선아동문화협회 상징문양(로고)

나. 권수(卷首)

본 연구에서 말하는 권수 부분은 <아협 그림애기책>의 앞표지 바로 뒷면을 의미하며, <아협 그림애기책>에서의 이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9>와 같다.



<그림 9> <아협 그림애기책> 권수 부분

위의 <그림 9>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각 책에 실린 작품의 설명과 함께 꾸민 사람의 변이 기재되어 있었다. 상세히 살펴보면 각 책의 권수에는 ‘(서명)에 대하여’라는 제목과 아래에 원작에 대한 설명과 원작을 저술한 작가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꾸민 사람’이라

는 사람이 어린이들이 이 책에 대해 어떤 점을 중점을 두어 읽어야 하는지, 이 책이 우리나라에 전래되어온 과정, 역사 등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피터어팬』에서는 저자 제임스·매퍼(J.M 배리)는 1860년 스코틀랜드에서 나서, 대학을 나와 신문기사를 지냈고, 1906년 놀랄만한 작품인 “피터어 팬”을 지어 이름이 높아졌고, 영국 귀족까지 되었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이 책을 꾸민 사람이 『피터어팬』에 대해 영국을 비롯한 서양 각국에서는 이 책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하고, 또 연극과 영화로 많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원래 이 책은 매우 두껍고 또 내용이 어려워서 어른들이 읽을 동화라는 평판이 있지만 어린이들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 많아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것이고 어른들은 재미있어 하지 않을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의 어린이들도 반드시 “피터어 팬”과 친해질 것이며, 이 책은 애기보다도 그림을 위주로 꾸미었으니 그 줄거리를 잘 알아두었으면 한다고 당부하였다.

『보물섬』에 대해서는 저자 화벌·루이스·스티븐슨(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은 1850년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딘버러에서 태어난 유명한 문호로서, 그가 32살 때 시작하여 이듬해 완성한 작품이라고 소개했다. 책의 내용은 열대지방 조그만 외로운 섬에서 용감한 소년 짐과 능글맞은 해적 실버와 서로 지혜 다툼을 하느라 여러 번 아슬아슬 모험 이야기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보물섬』을 그림애기로 꾸미려다 보니 사건이 몹시 복잡하고 또 조선 어린이들에게는 잘 알기 어려운 대목이 많아 적당하게 줄이고 또 살도 붙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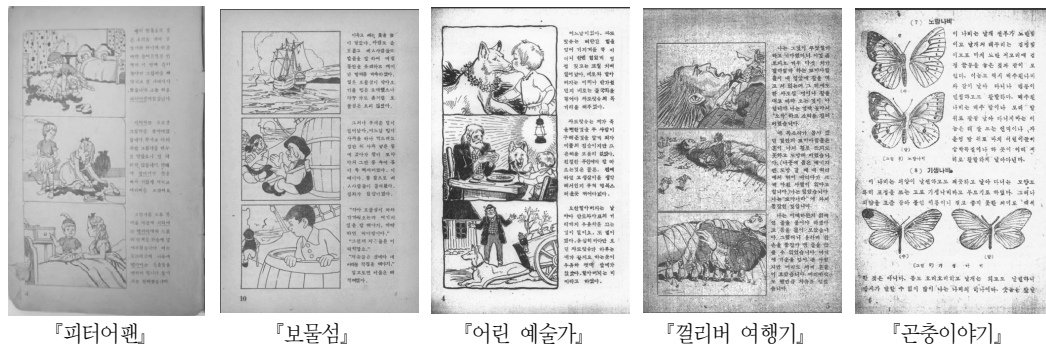
『어린 예술가』에 대해서는 유명한 소년소설 “프란시아스의 개”를 토대로 만든 그림애기책이라고 하였다. 이 소설은 영국의 유명한 여류소설가 위다가 지은 것으로, 그는 1839년에 태어나 스무살 때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으며 이것은 33살 때 지은 작품이라고 소개하였다. 또한 그림과 글을 비추어가며 읽어보면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가진 가난한 소년과 그의 사랑하는 동무 개의 슬픈 일생이 적혀 있다고 하였다. 이 책은 서양에서 널리 읽혔고 조선에도 30년 전에 번역 소개된 일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걸리버 여행기』에 대해서는 조나단 스위프트가 저술한 『걸리버 여행기』는 모두 4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꼬마나라”편만을 소개한다고 하였다. 이 소설은 어린이를 위해 쓴 것은 아니지만 내용이 펍 재미있으므로 어린이를 위해 쉽게 풀어 쓴 책이며 또한 세계 각 나라에 퍼져 있다고 하였다. 스위프트의 부모는 영국 사람인데 스위프트는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자랐고, 이 책이 출간된 시점부터 300년 전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다.

『곤충이야기』는 위의 책들 권수 자리에는 여백이었고, 표제지를 넣어 다른 4책과는 그 형식을 달리 하고 있었다. 표제지에는 서명, 저자, 발행자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고, 『곤충이야기』라는 서명과 같이 곤충 중 하나인 쇠똥구리의 삽화를 넣었다. 이는 표지에서도 『곤충이야기』가 4책과는 다른 점을 보였는데, 권수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4책과 비교하였을 때 특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다. 본문

권수 부분에 이어 본문이 바로 시작되는데, 각 책의 본문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10>과 같다.



<그림 10> <아협 그림애기책> 본문 부분

위의 <그림 10>과 같이,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의 본문은 『곤충이야기』를 제외하고 동일한 형식을 보였다. 대체적으로 삽화가의 그림으로 한 페이지에 3칸의 그림을 세로로 길게 구성하였고, 각각의 그림의 오른 편에는 소설 형식의 글이 배치되었다. 그림 1개당 한 문단의 글로 구성되어 있어 이야기에 대한 독자의 이해가 쉬운 편이었다.

그림은 인물에 대한 묘사가 비교적 잘 되어있어 표정이나 행동에 독자의 주목을 이끌고, 만화 형식으로 그려져 있어 그림을 통해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은 전체적으로 인물을 집중해서 그렸기 때문에 책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감정이 독자에게 잘 전달된 편이었다. 표지에 그려진 그림은 채색이 되었으나 본문의 그림은 채색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흑백으로 되었다. 펜으로 선을 이용하여 세밀하게 그린 흑백 펜화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다.

『곤충이야기』는 다른 4책과는 전혀 다른 형식으로 본문이 구성되었다. 4책의 공통된 형식과는 달리 다양한 곤충에 대해 기술하고 이에 곤충의 삽화를 넣은 형식이었다. 또한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4책과는 달리 ‘목차’가 있었다. 또 다른 상이한 부분은 4책은 모두 공통적으로 32페이지로 구성되었으나 『곤충이야기』는 80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었다. <을유문화사 50년사>의 발행목록에 따르면 『곤충이야기』가 <아협 그림애기책> 제10집으로 기재되었는데(을유문화사 1997, 410), 본문의 형식뿐 아니라 앞서 살펴보았던 권수 형식도 달랐고, 『곤충이야기』 책 자체에 <아협 그림애기책>이라는 문구도 찾아볼 수 없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곤충이야기』는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의 책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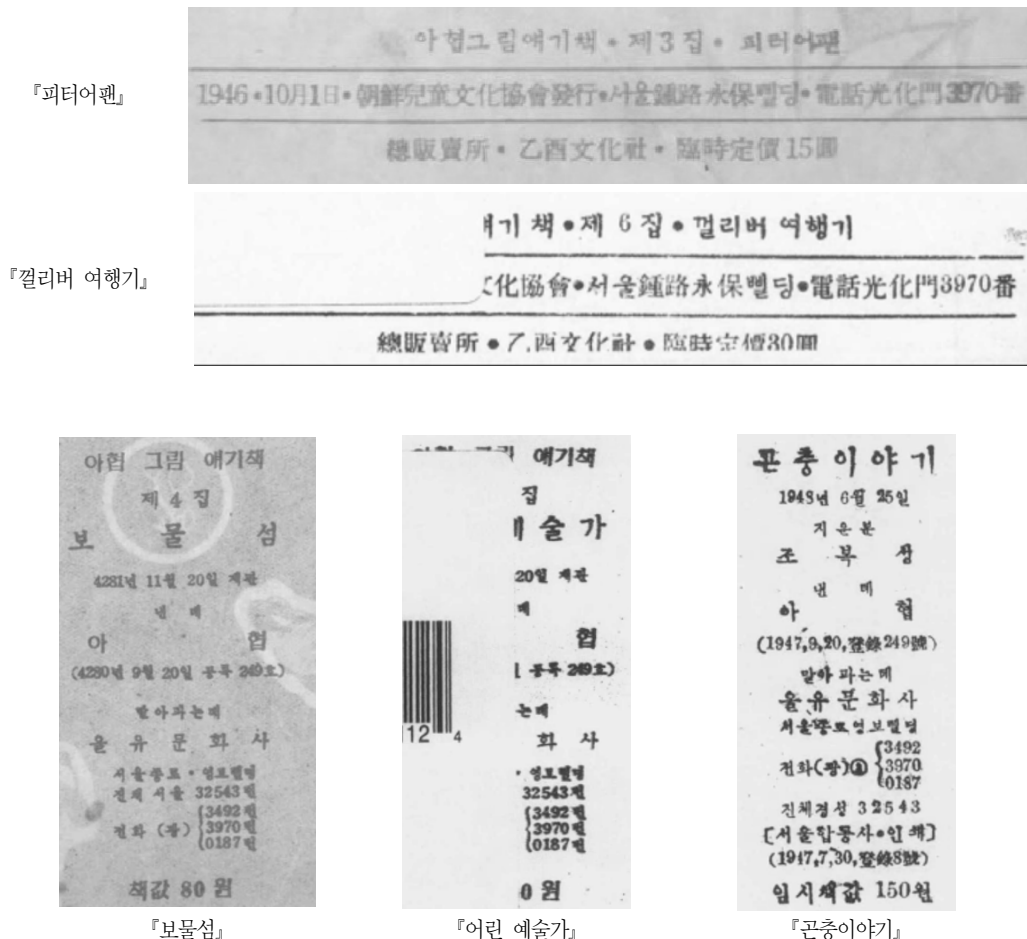
<아협 그림애기책>의 본문이 끝난 권말 부분은 뒷표지의 바로 앞면을 말한다. 각 책의 권말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아협 그림애기책> 권말 부분

위의 <그림 11>과 같이 <아협 그림애기책>의 권말에는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를 발행했던 아협과 판매를 맡았던 을유문화사의 또 다른 출간물에 대한 광고를 싣고 있었다. 『피터어펜』에는 당시 발행 중이었던 잡지 <주간소학생>에 대한 소개를 담고 있었고, 『보물섬』에도 학교를 통해 팔기도 하고 날권으로도 팔았던 <소학생>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다. 『어린 예술가』에도 마찬가지로 <소학생>에 대한 소개를 담았다. 『결리버 여행기』에서는 <소학생> 광고가 아니라 아협의 주간(主幹)이면서 아동문학가로서 동요 창작 및 보급에 힘을 썼던 윤석중 동요, 윤극영 곡인 ‘어린이 노래’의 악보와 가사가 실려 있었다. 『곤충이야기』에는 앞의 3책과 같이 아협에서 발행한 책들에 대한 소개와 홍보를 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잡지인 <소학생>을 크게 나타냈고, 이영철 엮음, 이희승 감수의 <학생 조선어 사전>(250원) 그리고 이영철이 지은 『틀리기 쉬운 말』(80원)을 소개하였다. 또한 성경린이 지은 『조선 음악 독본』(100원)과 현덕이 저술한 『토끼 삼 형제』(40원)도 권말에 실어 『곤충이야기』의 독자들에게 널리 알렸다. 『결리버 여행기』를 제외한 나머지 책에서 공통적으로 잡지 <소학생>을 소개하고 홍보하고 있었다. 잡지 <소학생>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주간 아동 잡지로서 을유문화사와 아협이 발행하고 편집한 정성을 들인 대표적인 발행물이었다. 그러므로 아협에서 발행한 <아협 그림애기책>에 잡지 <소학생>에 대한 소개와 홍보를 하여 더 많은 학생들과 어른들을 <소학생>의 새로운 독자로 이끌기 위한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권말 아랫부분에는 판권기가 기재되어 있다. 『곤충이야기』를 제외한 4책에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형식은 『피터어펜』과 『결리버 여행기』가 동일하고, 『보물섬』과 『어린 예술가』가 유사하였다. 이들을 자세히 보면 다음 <그림 12>와 같다.



〈그림 12〉 <아협 그림애기책> 판권기 부분

『피터어펜』과 『겔리버 여행기』의 판권기는 가로로 길게, 『보물섬』과 『어린 예술가』, 『곤충 이야기』는 세로로 길게 나타났다. 『피터어펜』이 <아협 그림애기책> 제3집이고 『보물섬』이 제4집이며 두 책의 발행연월은 거의 유사한데 판권기의 양상이 다른 것에 대한 원인을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앞서 살펴본 <그림 11>과 같이 아협 발행 <주간소학생>이나 동요를 실은 형태에 따라 판권기를 실을 공간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 판권기의 양상도 달리 표현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판권기의 내용은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에 속함을 기재하였고, 시리즈 중 몇 집인지 나타냈다. 서명과 책을 발간한 날짜가 있고, 발행처인 조선아동문화협회(아협)를 기재하였다. 아협은 1947년 9월 20일 249호로 등록되었으며, 판매는 을유문화사에서 하였다. 각 책에 대한 가격도 표시하였고, 아협 사무실의 주소와 전화번호도 기재되었다.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 중 대부분 책들은 뒤표지 바로 앞면에 아협 발행인 다른 책들의 광고 및 정보와 관련기가 실려 있는 반면에, 『곤충이야기』는 뒤표지 앞에 속지가 있었고, 그 속지 앞에 이러한 관련기가 자리하였다.

2. 발행 분석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 중 현전본을 대상으로 발행과 관련된 사항과 도서의 내용에 대해 항목을 정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아협 그림애기책> 현전본의 발행 사항

서명	권호	출판연월	판형	장정	면수	정가	내용
『피터어펜』	제3집	1946.10	A5	반양장	32	15원	변안동화
『보물섬』	제4집	1946.11 ⁴⁾	A5	반양장	32	15원	변안동화
『어린 예술가』	제5집	1946.11	A5	반양장	32	15원	변안동화
『겔리버 여행기』	제6집	1947.03	A5	반양장	32	30원	변안동화
『곤충이야기』	제10집	1948.07	A5	반양장	80	150원	창작도서

출판연월은 1946년 11월까지 비슷한 시기에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 중 3, 4, 5집이 발행되었고, 제6집인 『겔리버 여행기』는 앞서 출간된 것들과는 간격을 두어 다음 해 3월에 출간되었다. 제10집인 『곤충이야기』는 1948년 7월에 발행되었다. 이를 통해 <아협 그림애기책>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시리즈를 출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판형에 대해서는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 중 현전본 5책은 모두 같았다. 『을유문화사 50년사』의 발행도서목록에서는 A5 판형으로 기재되었고, 당시 발행되었던 신문의 광고에서는 국판(菊版)이라고 표현하였다. A5 판형과 국판은 책의 크기가 모두 세로 약 21.0cm, 가로 약 15.0cm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정 형태는 모든 책이 반양장의 형태로 출간되었는데 소프트 커버의 형태로서 책 제작의 경제적 측면과 동시에 독자 계층인 어린이들이 책을 다루기에는 이러한 장정 형태가 편리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면수는 모두 32면이었으나, 『곤충이야기』만 80면으로 구성되었다. 신문 광고에 제시된 발행 정보를 참고해보면 현전하지 않는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 중 제7집 『토끼전』, 제8집 『로빈슨크루소』, 제13집으로 알려진 『링크』은 32면으로 이루어졌다. 『을유문화사 50년사』 발행도서목록에서의 발행사항을 참고하면 제1집 『홍부와 놀부』, 제2집 『손오공』, 『꿈나라의

4) 『보물섬』은 『을유문화사 50년사』 발행도서목록에서는 출판연월이 1946년 10월 1일로 기재되었다. 하지만 현전본의 판권기에는 1946년 11월 재판이라고 되어 있다. 이들 기록에 따르면 『보물섬』이 간행된 지 한 달 만에 판이 다시 만들어져 발행되었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된 다른 문헌 등의 기록이 전무하여 사실을 가리기 어렵다.

아리쓰』는 각각 32면이었고, 제9집 『왕자와 부하들』은 64면, 제12집으로 알려진 『사랑의 학교』는 204면으로 구성되었다. 『사랑의 학교』는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을 정리한 오영식에 의하면 204면인 것으로 보아 <아협 그림애기책>은 아니라고 하였다(오영식 2009, 231). 이들 모두를 정리하면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로 알려진 13책 중 10책 대부분은 32면으로 구성되었고, 32면이 아닌 책으로는 『곤충이야기』, 『왕자와 부하들』, 『사랑의 학교』로 확인되었다. 특히 『왕자와 부하들』과 『사랑의 학교』는 현전하지 않을뿐더러 당시 출판 상황을 알 수 있는 신문 광고 등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가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시리즈의 대부분 책들과는 형태적으로 모습과 성격을 달리하고 있어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책값의 경우 제3집~5집은 15원이었고, 『꼴리버 여행기』의 경우 『을유문화사 50년사』의 발행도서목록에는 15원이라고 기재되었으나 실제 해당 책에는 30원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 사실을 통해 『을유문화사 50년사』에 제시된 발행도서목록의 서지사항에는 오기(誤記)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곤충이야기』는 『을유문화사 50년사』의 발행도서목록에서 <아협 그림애기책> 제10집으로 기재되었으나 앞서 살펴본 체제 분석의 내용을 비롯하여 형태 분석에서는 다른 책들과는 다른 점들이 많았다. 우선 책 표지에 <아협 그림애기책>임을 기재하지 않았고 『곤충이야기』에는 ‘소년과학독본’이라고 표시하였다. 또한 권수에서 다른 책들과는 달리 표제지를 나타냈으며, 본문에 있어서도 동일한 체제로 구성되지 않았다. 『곤충이야기』는 머리말과 목차가 있었고, 그 이후에 본문을 싣고 있었다. 또한 다른 시리즈들은 3컷 만화와 글을 담고 있는 반면에 『곤충이야기』는 저자인 조복성이 어린이 수준에 적당하도록 글을 싣었고 해당 곤충의 모습을 필요시에 그림으로 표현하는 형식을 가졌다. 권말이나 뒤표지 등 모든 부분에서 앞서 출판된 시리즈 제3집~제6집의 체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다른 책들은 32면으로 구성되었으나 『곤충이야기』는 80면인 점이 다르고,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해보면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는 전래동화 혹은 외국작품을 번안한 동화인 반면, 『곤충이야기』는 조복성이 직접 저술한 작품이므로 내용상으로도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이 모든 사항들을 종합해보면 『곤충이야기』는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을유문화사 50년사』의 발행도서목록 중 『곤충이야기』가 ‘<아협 그림애기책> 제10집’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오기된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

3. 삽화가 분석

당시 많은 출판사들은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말과 글을 익히기 쉽게 그림을 곁들인 형식으로 책을 출판하였다. 현재의 만화책이라는 개념보다는 아동교양도서로서 만화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것이다.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 중 현전본의 삽화를 그린 화가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현전본 <아협 그림애기책>의 삽화가

서명	삽화가
『피터어펜』	김의환
『보물섬』	김용환
『어린 예술가』	김의환
『ल्ली버 여행기』	김의환
『곤충이야기』	-

현전본의 삽화가는 김용환과 김의환이었다. 김용환과 김의환은 형제로, 당시 출판계에서 삽화가로서 활약이 돋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를 두 형제가 번갈아 그렸는데, 형제 화백의 만화적이고 해학적인 기법을 채용한 것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두 화가의 삽화로 인해 한동안 책들의 판매가 잘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정진숙 2007, 109). 이처럼 아협은 아동도서 특히 그림책 발간을 위해 김용환, 김의환과 같은 전문적인 화가에게 삽화의 일을 맡겼다. 『곤충이야기』는 삽화가 있으나 누가 그렸는지에 대한 정보는 책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저자 조복성이 저술하면서 그림도 함께 그렸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현전본에는 삽화를 그리지는 않았으나 <아협 그림애기책>의 미전본 중 『로빈슨 크루소』와 『꿈나라의 아리쓰』의 삽화를 그린 정현웅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삽화가의 이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김용환(金龍煥)과 김의환(金義煥)은 경상남도 김해에서 태어났다. 형제는 함께 일본에서 유학하며 미술교육을 받았다. 일본에서 학업과 함께 생계를 위해 여러 가지 미술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실전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김용환은 일본에서 화가로 활동하며 산세도(三省堂) 출판 백과사전의 삽화 및 소년잡지의 삽화를 그리면서 인기를 끌었다. 1936년 「모던 미발」을 『신동아』에 게재하며 데뷔했다. 1938년 <소년조선일보>에 「뽕뽕이」를 연재했고, 1942년 재일교포신문 <도쿄조선민보>에 4칸 만화 형식으로 대표작 「코주부」 만화를 처음으로 연재했다. 해방 직후 <서울타임즈(The Seoul Times)>에 「코주부」를 연재하면서 당대 최고의 만화작가로 자리 잡았다. <중앙신문> 등의 정치풍자만화로 대단한 인기를 얻었고, 다수의 신문에 복수 연재를 했다. 또한 여러 출판사로부터 아동만화 창작 요청을 받아 여러 작품을 그렸는데, 이 시기에 나온 대표적 작품이 마해송 원작의 『토끼와 거북이』으로 최초의 만화 단행본으로 확인되며 그밖에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 등이 있었다. 김용환의 작품 성향은 크게 기록사진보다 섬세한 풍속화와 삽화, 풍자성이 강한 간략한 만화풍의 시사만화와 아동만화로 나뉜다. 시사만화는 선전용으로 아동만화는 계몽용으로 국한되었던 부분도 없지 않지만 어른에서 아이까지 당대 대중의 기호를 가장 정확하게 어루만졌던 것으로 전해진다(부천만화센터 2005, 147).

김의환은 해방 후에 귀국하여 한국전쟁 이후 대표적인 1세대 만화가로 왕성하게 활동했다. 해방 이후 1946년 1월 발족한 조선아동문화협회를 통해 1946년 『어린 예술가』, 1947년 『걸리버 여행기』, 1948년 『왕자와 부하들』을 출간했다. 이 도서들은 모두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로 출간되었는데, 만화와 그림책의 혼합된 형태를 갖고 있다. 김의환은 한국 현대 만화 정착기에 형 김용환과 함께 시사만화, 어린이 만화를 넘나들며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잡지와 신문, 단행본 등 여러 영역에 걸쳐 활발하게 활동했다.

정현웅은 1911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경성 제2고등보통학교 재학과 졸업 후에 중에 조선 미술전람회에서 잇달아 입선하였고, 1943년까지 13회에 걸쳐 작품 18점이 입선, 특선을 하며 화가로서 인정을 받았다. 이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조광>, <여성>, <소년> 등 신문과 잡지에 이무영, 장혁주 등 문인의 작품 등 수많은 삽화와 표지화를 그렸다.

해방 직후에는 조선미술건설본부 서기장을 역임하였고, 조선아동문화협회 결성했으며 고려문화사 편집위원, 1948년 11월에는 조선미술동맹 위원에 선정되었다. 또한 <신천지> 편집장으로 활동하면서 문인들의 책 장정을 도맡았다. 이외에도 어린이 만화와 시사만화 등을 그려 한국현대만화의 선구자로 일컬어졌다.

IV. 결론

이 연구는 1946년부터 1949년에 출간된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를 대상으로 발행과 현전본의 현황, 미전본의 출판 이력, 체제 및 형태 분석과 연구대상의 삽화를 그린 화가 등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협 그림애기책>은 해방 이후 설립된 을유문화사의 병설 단체인 조선아동문화협회(아협)에서 발간한 그림책 시리즈였다. 아동문화의 선도적 창달을 위해 노력한 아협은 해방 후 최초의 주간 잡지인 <주간 소학생>을 발간하였다. 당시 잡지에 참여했던 김용환과 김의환이 연재한 글을 모아 단행본 형태의 그림책으로 여러 차례 출간하였다. 이것이 바로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로 발행되었고, 이는 아동물 개인 전집이라는 데에도 의미가 있었다.

둘째,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의 구성에 대해 1995년 발행된 『을유문화사 50년사』 중 발행도서목록과 현재 을유문화사 홈페이지를 통해 13집으로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을유문화사의 창립자 중 하나인 정진숙의 2007년 발행된 『출판인 정진숙』이나 다른 연구논문에 따르면 10집으로 구성되었다는 이견이 있었다. 현전본이 적은 까닭으로 시리즈의 구성이 13집인지 10집인지에 대한 여부를 밝히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해보았다.

셋째,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 중 현전본은 모두 5책으로, 개인소장 중인 제3집 『피터 어팬』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 소장 중인 제4집 『보물섬』, 제5집 『어린 예술가』, 제6집

『껄리버 여행기』, 제10집으로 알려진 『곤충이야기』가 있었다. 미전본 중에는 당시 발행된 신문들, <한성일보>, <조선중앙일보>, <연합신문> 등에 실린 광고에서 출판 이력을 확인하였다. 제1집 『흥부와 놀부』, 제2집 『손오공』, 제7집 『토끼전』, 마지막으로 『린큰』 등은 현재 남아있지는 않지만 당시 출판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광고의 내용을 통해 『을유문화사 50년사』에 기재되지 않은 발행사항을 새로이 알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넷째, 현전본 <아협 그림애기책>을 대상으로 체제 분석을 한 결과, 크게 표지, 권수, 본문, 권말의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앞표지는 서명과 저자사항, 채색삽화와 발행처가 기재되었고, 뒷표지에도 책 내용과 관련된 삽화와 ‘아협그림애기책 제0집’이라는 문구, 조선아동문화협회의 로고가 있었다.

권수는 앞표지의 바로 뒷면을 말하며, 각 책의 작품에 대한 설명, 꾸민 사람의 변(辯)이 있었으나, 『곤충이야기』는 이와 달리 표제지가 있었다.

본문은 삽화가의 그림이 한 면에 세로로 3칸으로 길게 구성하였고, 그림의 오른 편에는 소설 형식의 글이 배치되었다. 표지와 달리 흑백 펜화기법으로 그림을 그렸다. 『곤충이야기』는 4책과는 다른 형식으로 본문이 구성되었다.

권말은 뒷표지 바로 앞면을 말하며, 이 면에는 아협과 을유문화사의 또 다른 출간물에 대한 광고 혹은 아협의 주간이었던 윤석중이 지은 동요의 악보와 가사를 실었다. 그리고 판권기가 기재되었다.

다섯째, 현전본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의 발행사항을 분석한 결과, 모두 A5 판형으로 동일했고, 반양장의 장정 형태를 보였다. 면수는 대체적으로 32면으로 동일했으나 『곤충이야기』만 80면이었다. 또한 내용에 따라 분석한 결과,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는 전래동화나 변안동화이지만 『곤충이야기』는 조복성이 곤충에 대해 관찰한 바를 저술한 것으로 성격을 달리하였다.

여섯째, 현전본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의 삽화가를 분석한 결과, 김용환과 김의환 형제가 그림을 그렸다. 김용환은 『보물섬』, 김의환은 『피터어펜』, 『어린 예술가』, 『껄리버 여행기』를 그렸고, 『곤충이야기』는 곤충 모습을 그린 그림이 있으나 삽화가에 대한 정보는 없었고 저자가 직접 그림도 그렸을 것으로 파악된다.

일곱째, 현전본 <아협 그림애기책> 5책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제10집으로 알려진 『곤충이야기』는 다른 책들과 발행, 형태, 내용 등 특징을 달리하고 있어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현전하지 않고 있지만 여러 정황에 따라 『왕자와 부하들』, 『사랑의 학교』는 『을유문화사 50년사』 중 발행도서목록에 <아협 그림애기책> 시리즈로서 기재되었으나 시리즈가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을 지니지 않고 있어 『곤충이야기』와 같이 <아협 그림애기책>이 아닐 것으로 추측하였다.

이 연구는 해방기라는 격동적인 시기에 다양하게 시도된 출판물 중 한국 그림책 장르의 폭을 넓혀 준 <아협 그림애기책>을 다각도로 분석함에 그 의의를 두었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아동문학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출판사 연구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또한 이 연구는 해방기라는 특수한 시기에 발행되었던 출판물에 관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신문

- 광고. 1947. 『婦人新報』. 09월02일.
광고. 1947. 『한성일보』. 08월19일.
광고. 1947. 『한성일보』. 12월11일.
광고. 1947. 『현대일보』. 12월12일.
광고. 1948. 『평화일보』. 07월09일.
광고. 1949. 『연합신문』. 03월12일.
광고. 1949. 『조선중앙일보』. 07월08일.
제85화 출판의 길 40년-정진숙「아동문화협회」의 활동. 1985. 『중앙일보』. 06월25일.

2. 단행본

- 김용환 그림. 1946. 『보물섬』. 서울: 조선아동문화협회.
김의환 그림. 1946. 『어린 예술가』. 서울: 조선아동문화협회.
부천만화센터. 2005. 『코주부 김용환의 재발견: 삼팔선 블루스에서 성웅 이순신까지』. 서울: 현실문화연구.
오영식 편저. 2009. 『해방기 간행도서 총목록』. 서울: 소명출판.
을유문화사 편. 1997. 『을유문화사 오십년사』. 서울: 을유문화사.
정진숙 저. 2007. 『출판인 정진숙: 을유문화사 창립자 정진숙의 출판 인생』. 서울: 을유문화사.
조복성 저. 1948. 『곤충이야기』. 서울: 조선아동문화협회.
조자약 글. 1947. 『펼리버 여행기』. 서울: 조선아동문화협회.

3. 논문

- 박혜리. 2018. 『해송 마해송 저작의 서지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소원. 2013. 김용환의 일본에서의 작품 활동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33 : 247-269.
백정숙. 2014. 해방기 만화목록. 『근대서지』, 10 : 455-466.
조성순. 2016. 해방 직후의 그림책 『토끼와 원숭이』 연구. 『아동청소년문학연구』, 18 : 161-206.

4. 홈페이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 <www.nlcy.go.kr> [인용 2018. 10. 10]

국립중앙도서관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 홈페이지 <www.http://nl.go.kr/newspaper>
[인용 2018. 10. 05]

을유문화사 홈페이지 <www.eulyoo.co.kr> [인용 2018. 10. 07]

한국만화영상진흥원(디지털만화규장각) 홈페이지 <www.komacn.kr> [인용 2018. 10. 20]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people.aks.ac.kr/index.aks> [인용 2018. 11. 12]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aek, Jeongsuk. 2014. "The category of cartoon in the liberation period." *The Modern Bibliography*, 10 : 455-466.

Buchun Cartoon Center. 2005. *Rediscovery of Kim Yong-Hwan*. Seoul: Culture Studise.

Cho, Jayak. 1947. *Gulliver's Travels*. Seoul : Association of Chosun Children's Culture.

Eulyoo Publishing. 1997. *The 50 years of Eulyoo Publishing*. Seoul: Eulyoo Publishing.

Kim, So-Won. 2013. "A Study on Kim, Yong-Hwan's Works of Art in Japan : Focusing on the Illustrations between 1930s and 1940s." *Cartoon & Animation Studies*, 33 : 247-269.

Kim, Uihwan. 1946. *The Young Artist*. Seoul : Association of Chosun Children's Culture.

Kim, Yong-Hwan. 1946. *Treasure island*. Seoul : Association of Chosun Children's Culture.

Oh, Yeongsik. 2009. *The Catalog of print books in liberation period*. Seoul: So Myeong publication.

Park, Hyeri. 2018. *A Bibliographic Study of Haesong Ma, Hae-song*. M.A. thesis., Chung Ang University.

Jeong, Jinsuk. 2007. *Publisher Jeong Jinsuk*. Seoul: Eulyoo Publishing.

Jo, Bokseong. 1948. *The Story of Insect*. Seoul : Association of Chosun Children's Culture.

Jo, Seongsun. 2016. "A Study on the Post-independence Era Picture-book The Rabbit and the Monkey - Based on Liberty newspaper, Ahyup and Chunggu edition." *Children's Literature Studies*, 18 : 161-206.

